

진도군, 저출산 극복 시책 '장려상'

'도서지역 맞춤형 출산 서비스' 우수 시책 인정

진도군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는 전국 시·군·구 226개 지자체 가운데 총 57건의 우수시책이 추천됐으며, 이 중 11건이 최종 경진대회에 올랐다.

진도군의 저출산 우수시책은 '도서지역 맞춤형 출산 서비스'로 교통 불편과 임신·출산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지역을 위해 산전·산후건강관리 등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시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서지역 맞춤형 출산 서비스'는 임신부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와 1:1상담 닥터콜 ▲119안전센터, 외래산부인과 등 유관기관 협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등 임신부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국 최초 산후도우미 인력 양성과 원거리 교통비 지급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으로 아이와 부모가 걱정 없는 행복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출산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은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셋째 이상 2,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행복나눔 건강보험, 3자녀 이상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 임신부 비타민D 제공, 우리아이 건강관리 간호사, 산전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완료

무안군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2,363점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안지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지난해 26일까지 지적측량점 27점, 지적삼각보조점 87점, 지적도근점 2,250점을 대상으로 망실 또는 훼손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 도로굴착과 포장, 각종 개발사업, 원인불명의 사유 등으로

인해 망실 또는 훼손되어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기준점 552점(지적삼각점 8점, 지적삼각보조점 45점, 지적도근점 499점)에 대하여는 폐기했다.

측량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기준점 1,224점에 대해 고시하여 측량에 활용될 계획이며, 기준점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지적기준점 표시 깃발을 설치하여 지적기준점 관리 및 보호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국민간식 '해남 햇고구마' 수확 시작

해남군은 여름철 대표간식인 받고구마 품종 '진음미' 수확이 일반고 무마보다 두달 가량 빠른 지난해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음미는 지난 2016년 국내 육종된 받고구마 품종으로 맛이 부드럽고, 당도 또한 꿀고구마 못지않게 높아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이 줄었던 지난해에 비해 올 해는 적정 강수량과 일조량 등 기상여건 호조로 풍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은 10kg 한박스에 2만5000원으로 평년 수준이다.

갓 수확한 햇고구마는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해남미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해남군은 2018년 기준 1914ha 재배면적에서 연간 2만7000여t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고구마 주산단지로 전국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강진군, 로컬푸드활성화 협의회 개최

강진군은 지난달 30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직거래사업단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특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특산물의 직거래활성화 및 농식품의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판매 확대, 최근 임시 개정하여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회원들은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한 직판행사 확대, 판매실적이 높은 서울 시청, 조계사 등 대도시 소비처에 대한 꾸준한 관리, 로컬푸드 직매장 내 특색있는 매대 배치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보다 생산적인 협의회를 진행했다.

한편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는 강진군 민선 7기 핵심공약사항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도농상생 화합을 통한 신뢰 형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관광안내소, 가우도 등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판로 개척으로 직거래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직거래사업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앞장서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목포시 드림스타트 이전 개소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목원동 트윈스타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지난달 30일 개소식을 가졌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2009년 6월 상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드림스타트를 개소하여 상동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서비스지역을 확대해오다 2013년에는 목포시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 개시 10년이 지

난 상황에서 목포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트윈스타 3층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트윈스타에 새로 문을 연 드림스타트는 면적 306㎡로 상담실, 북카페, 3개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아동과 부모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항상 애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드림스타트 이전 개소를 축하하며, 드림스타트도 우리 아이들도 좋은 공간에서 더욱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드림스타트는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 할 계획이다.

목포=조상용 기자

영암군, 여름철 감염병 예방 캠페인 전개



음식문화개선 홍보 병행

영암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암군지부와 함께 식중독·감염병 예방과 음식문화개선 홍보캠페인을 월출산 기전랜드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월출산 기전랜드를 찾아오는 피서객들에게 여름철 폭염과 고온다습한 날씨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과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 정책을 위한 홍보도 함께 병행됐다.

주요 내용은 여름철 식중독·감염병 예방 요령, 안전한 외식문화정착, 나트륨 줄이기 홍보는 물론, 부채, 물티슈 등 식중독·감염병 예방 홍보물품도 함께 배부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식중독과 감염병이 급증할 수 있어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며 물은 끓여 마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4차산업혁명 융·복합 미래

건강도시 구축 위한 워크숍 개최

완도군은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융·복합 미래건강도시 구축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해 직원들이 이해하고 주요 사업에 각종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조병만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먼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정의 및 개념, 4차 산업 혁명 국내외 현황,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과 완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농·수·축산업, 관광, 해양 바이오 연구 클러스터 조성 등을 4차 산업과 연계하는 기술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에 대해 실현 가능한 기술과 발전 방향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이 2019 지능형 ICT(정보통신기술) 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개 마을(불목, 영풍, 황진리)에 스마트 해양치유마을을 조성하게 됐다"면서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업에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접목해 완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4차 산업 혁명 학습 동아리 운영과 각 부서별 TF팀을 구성·운영을 통해 2020년도 사업 및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주요 사업에 관련 기술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